

Pro p y l e n e , 40달러 폭등 700달러

FOB Korea 680-700달러 형성 ... 한국은 3월 여유물량 3000톤 불과

Propylene 가격은 2월21일 FOB Korea 톤당 680-700달러로 40달러 폭등했다.

아시아 프로필렌 시장은 나프타 가격이 크게 상승한 상태에서 공급이 타이트해 초강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중동정세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한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나프타 가격은 C&F Japan 톤당 346달러로 전주에 비해 5달러 하락했으나 여전히 초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평소가격 톤당 170-180달러의 2배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프로필렌 가격이 3월 거래물량 기준 FOB Korea 톤당 685달러를 형성했는데, 한국은 3월 공급 여유물량이 1500톤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FOB Korea 톤당 700달러 이상을 요구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타이완에서도 CPC와 Formosa 크래커의 정기보수에 따라 수급이 타이트한 상태이다. 타이완의 AN 생산기업들은 CFR Taiwan 톤당 680달러에 구매했으며, PP 생산기업들은 3월 하순 거래물량 1500톤을 역시 680달러에 구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동에서 수출한 프로필렌 7000톤 Cargo 중 3000톤도 CFR SE Asia 690달러를 형성했고, 필리핀은 4000톤이 CFR 700달러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매자들은 690달러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유럽의 프로필렌 가격은 Polymer 그레이드가 FD NWE 톤당 550-565유로, Chemical 그레이드 역시 550-565달러를 형성해 3달러 상승에 그쳤다.

유럽의 프로필렌 시장도 수급이 타이트한 상태이나 미국에서 유입되는 물량이 많아 가격상승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3/ 02/ 25>